



고창군 의회사무과 직원,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고창군 의회사무과(과장 봉원업)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고창군 의회사무과 직원 14명은 흥덕면 제하리 농가를 방문해 서운 솜씨지만 포도송이를 속아주는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돕기 지원농가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큰 고심거리였는데, 직원들이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봉원업 과장은 "조그만 힘이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재난안전과, 코로나 극복 농촌 일손 돋기

고창군청 재난안전과(과장 김재관)는 흥덕면 고추밭 농가에서 고추잎 따기, 김매기 등 일손을 도우며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재난안전과는 농활 활동에 따른 주민들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 도시락과 새참거리 등을 직접 마련하는 등 세심한 배려에도 나섰다.

농가는 "요즘 인건비를 줘도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군청 직원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큰 힘이 되어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군청 김재관 재난안전과장은 "농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 성수면, 농촌 일손돕기로 농가 부담 덜어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과 보건소 직원 15여명은 본격적이나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원들은 성수면 용포리 박동경(77세)농가를 찾아 고추지지대 세우기(4,000㎡), 고추밭 유인풀 치기(4,000㎡) 등을 실시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부담을 덜어졌다.

이날 대상 농가 박동주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바쁜 업무 가운데 도움을 준 성수면사무소 및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사회혁신에 주체적 참여 기대"

군산대WISET사업단, 군산시립도서관에 도서 기증

군산대WI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사업단이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한 강의를 엮어 출간한 도서 'WISET의 시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군산시립도서관(관장 한병완)에 기증했다. 군산대WISET사업단(단장 박성신)이 해마다 출간한 WISET의 시선 4차선 '한번혁명', 'WISET의 시선: 지역의 가치'에 이어 올해 출간된 'WISET의 시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은 전북지역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재 육성을 목표로 군산대WISET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2019년 'WISET 새만금포럼'과 2020년 '공학과 젠더혁신, 청소년상상학교'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과 강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WISET의 시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은 그동안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살펴보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한 접근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달식에서 박성신 단장은 "지역사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흐름인 사회혁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고, 김석순 부



단장은 "군산시립도서관이 군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더했다.

군산시립도서관 한병완 관장도 "해마다 기증해준 뜻 깊은 도서를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서기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



남원경찰 도통지구대, 감염예방 위한 방역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도통지구대(대장 박홍규)는 지난 25일 코로나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간 연장에 따라 지역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대 순찰차 및 사무실 내부 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에서는 손잡이나 지구대 청사 내부와 순찰차량 등을 방역하였으며,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홍규 도통지구대장은 "우리 가족과 동료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로나9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사무실 및 차량에 대해 꼼꼼한 소독을 실시해 지역감염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소방서,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5일 남원시 전통시장 3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121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지역과 전통시장, 기타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차 도착 전 시민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띠는 곳에 설치한 공용소화기이다.

전통시장은 노후 점포가 밀집해 있고 가연성 상품이 많아 급속한 연소화재의 우려가 높고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이나 시설물 때문에 소방활동에 장애가 많은 곳으로, 노후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끊임없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무풍장학회 관내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무주군 무풍장학회(회장 이대석)는 지난 24일 올해 무풍초·중·고 신입생 및 전입생 19명 모두에게 장학금 50만 원씩을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무풍장학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고, 매년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놓인 3개 학교(무풍초·무풍중·무풍고)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달하게 됐다는 것.

이대석 회장은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교육기관인 무풍초·중·고를 향한 장학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헤아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정자역에 위치한 무풍초·중·고등학교는 소규모 학교 특성상 전교생이 매일 등교 수업과 눈높이 밤과 후 학교 등 돌봄 인프라가 좋고 맞춤식 교육과정을 중점으



있도록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일손 돋기를 진행해 농가와 어려움을 나누고 인력난 극복에 보탬이 되겠단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